



권 두 언

## 삶에 힘이 되는 충남을 그리다

기획편집위원회 일동

우리는 제1권에서 충남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사는 충남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다가올 2040년 충남을 상상해 보면 여전히 우리 도민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 ‘지역’의 시대적 의미를 되짚으며

3년 전 『충남의 미래 2040』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민 행복의 시각에서 미래를 그려 보자고 다짐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구가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추격형 성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성장이 되어야 한다. 추격형 성장은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국가 주도하에 모든 역량

을 동원해 신속하게 따라잡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가 왔는데, 그러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자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쟁은 불가피하다. 추격형 성장 시기의 시행착오는 시간 낭비였고 경쟁은 죄악이었다. 이제 시행착오와 경쟁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지역이다.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혁신을 실험하고 검증된 것들이 나라의 정책과 진로로 채택되는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해 보인다. 지역의 주도성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여는 필수요건이 된 것이다.

###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줄곧 고민해 온 것은 2040년 충남도민은 행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을 사는 우리 어른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으로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OECD는 최근 미래의 지속가능한 웰빙(Well-Being)을 담보하기 위한 ‘자본’으로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을 손꼽았다(OECD 2016).<sup>1</sup> 이 시각에서 보면, 충남은 바퀴가 고장 난 자

1 자연 자본은 자연환경의 측면이며, 인적 자본은 대개 개인의 기술, 역량, 건강 상태를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관계, 시민 참여, 사회적관계망 지원, 신뢰와 협동 규범을 말한다.



동차와 같다. 인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라는 바퀴는 그나마 밀접한 반면, 자연 자본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는 '지역은 당신의 삶에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궤적을 찬찬히 더듬어 보면 지역은 아이들에게는 학교나 학원이었고, 어른에게는 직장이었고, 노인에게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지역'은 없었다. 물리적 환경으로서 지역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지역사회로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가 소중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절실하다. 지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휴식과 돌봄의 장이며, 기업과 기업이 거래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일터이자,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배움터이자 놀이터다. 이러한 지역을 만들지 못한다면 충남은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어린이 행복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지역경제를 걱정하면서도 대기업 공장 유치에 목을 매는 지역이고 대학은 많아도 지역사회와 어우러지지 않는 곳에 머물 것이다.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다. 사회적 자본은 유무형의 생산된 자본과 금융 자본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들을 총량으로 보면 그러한 자본들의 흐름인 서비스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미래 특정 충격은 이러한 자본이나 서비스에 주는 변화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 미래 충남 행복을 위한 ABC: 자율, 균형, 연결

충남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 다음 세대에 게 행복한 지역사회를 물려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심스레 자율(Autonomy), 균형(Balance), 연결(Connection)이란 키워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자율]

충남인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자율성은 자신의 삶에 통제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도로서의 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치, 개인적인 삶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집권적 구조 아래에서 충남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점차 지역 자원은 유출되고 활력을 잃어갔다. 자율성의 핵심은 개인의 자급자족, 자선 활동, 상호부조, 비영리 부문, 사회적 경제 등이 지방정부의 지원과 결합되어 지역 차원의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래학에서 예측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이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증강시킬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

### [균형]

사람들은 충남을 'No.3 지역'이라고 한다. 특출한 것은 없지만 그





렇다고 모자라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현재 충남도민이 다른 광역시도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핵심 비결은 '균형'이다.

교육이나 의료 등 서비스 질은 조금 낮지만 만족스러운 주택과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또 고급 일자리가 많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풍부하다. 그리고 전국 최고는 아니지만 비교적 균형잡힌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산·들·강·바다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썩 괜찮은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이 전국에서 또는 국제 사회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도권, 대전과 같은 대도시를 꿈꿀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쇠퇴하는 농촌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다. 자연 자원을 회생하여 인적 자본, 경제적 자본을 중심으로 발전한 충남은 이제 자연 자원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여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 [연결]

충남은 주민, 기업, 대학 등 소위 생활, 생산, 혁신의 주체들이 고립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다. 개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어짐 없이는 근본적으로 돌봄도, 상호지원도 불가능하다. 기업은 분업과 협력의 거래 관계로 이어져야만 성장에 유리하고 지역 고용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대학도 지역 주체들과 이어져야 혁신의 발원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깊고 멀리 전파될 수 있다. 충남의 주민, 기업, 대학 등 소위 생활, 생산, 혁신의 주체들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의 미덕은 충남의 지정학적 여건과도 연관된다. 충남은 인구, 자원, 시장 등 물리적 규모를 키워서 수도권이나 바다 건너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경쟁하려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들의 자원을 발판삼아 충남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1500년 전 백제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 2040년, 삶에 힘이 되는 행복한 충남을 그리다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원천은 크게 가족, 지역, 국가, 그리고 시장이다. 현재 이 4대 원천의 상대적 비중은 평균적으로 1:0:1:8이었다. 임금노동을 통한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의 복지 비중은 여전히 적다.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2040년에는 이 비율이 1:2:2:5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국가 복지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당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지역사회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전환의 가장 큰 변수는 지역사회의 비중에 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와 같은 자선 부문이 전체 GDP의 2%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지역사회 비중을 높이는 전환은 사람들의 삶에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그 자체로 행복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지역사회가 주민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일종의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충남의 미래상을 “삶에 힘이 되는 행복한 충남”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 책은 사람, 문화, 돌봄, 환경, 경제, 정주, 지역인재, 자치, 국제 등 9개 영역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충남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자 했다.

이 책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의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2040년이 되면 지금의 상상보다 더 잘 되어 있긴 하겠지만 말이다.



## 차례

발간사 004

서 문 006

## 1장

2040년 충남인은 누구인가 \_홍원표, 김수현 018

‘사이버 충남도민제도’로 충남의 경계를 허물자 \_정태식 033

다문화로 더 커진 충남 \_박인규 037

행복한 죽음, 웰다잉 \_최영숙 040

## 2장

다양성으로 고유성을 담는 충남 문화 \_이경복 044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충남의 여성 \_홍제연 063

일상으로 만드는 문화 콘텐츠 \_송충기 068

도민 모두가 문화 산업의 주인공 \_신현보 072

## 3장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새판 짜기 \_송미영, 안수영 078

돌보는 사람이 행복한 충남 \_김양지영 094

생활하기 좋은 마을의 시작 ‘돌봄 품앗이’ \_최은희 099

1차 의료의 꽃, 주치의 제도 \_신현정 103